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 이승구 차관 취임

정부는 2002년 7월11일(목) 일부개각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7월 19일(금) 과학기술부 차관에 이승구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임명하였다.

### 이승구 차관님 취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유희열 차관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이 72년부터 과학기술부에 몸담아온 이래, 어언 30여년이 됩니다만 막상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하나 하나를 최대한 결집하여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우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장관님의 정책의지를 충실히 받들고 직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과 일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화단결입니다. 조직은 인화단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인화가 흐트러지면 조직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직원상호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정권은 바뀌지만 행정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미래부처로서 여야의 정쟁에 관계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당연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가 신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이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저를 비롯하여 직원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신 유희열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